

● **연중 제 27주일 강론**

신학생 시절 작사하였던 노래 ‘그 소리 들었네’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 포도밭 과수원을 하셨을 때, 여름방학 중 과수원 정자에 앉아 썼던 노래 시였습니다. 그 노래 후렴 가사는 “난 노래 하리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임의 포도밭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 포도밭을 가꾸셨는데, 수확철의 결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라 말이나?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나?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이사 5, 4)

그래도 사제직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제 자신을 바라보시며 제게 물과 거름과 땅을 일구시고 돌을 골라 정성으로 가꾸셨는데, 이제와 보시면 세상 영욕과 세속의 타락에 오염된 들포도가 되어 있으니, 제게 대한 주님의 실망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제도 인간인지라 언제나 시기심과 질투, 세상사의 욕망과 집착이 따라 다닙니다. 범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소유를 점점 줄여 나가야 완덕을 향하는 길일진대, 갈수록 늘어나는 물건과 사람과 명예에 대한 집착은 처음의 순수를 계속 버리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마음의 내용은 어둠과 우울, 낙담, 체념 등입니다. 나아가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밭에서 무엇인가 이룬 양 안주하는 못난 자신의 모습뿐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컨시다인’ 신부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하신 분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애로우신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쉽게 용서치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말 때문에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친한 친구란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사소한 언행 때문에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느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신명 5, 9)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인 까닭에 그토록 질투까지 하시며 당신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것이요, 지극 정성으로 가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

인내와 기다림,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은 ‘사제직’ ‘예언직’ ‘봉사직(왕직)’입니다. 끝내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직분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금 당신 포도밭에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소명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성 바오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필리 4, 8)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의 직분에 우리는 세상 영욕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끊임없이 간직하며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우리를 불러 주셨고, 당신 포도밭에서 우리를 가꾸셨습니다. 때론 거름으로, 때론 가지치기로, 때론 땅을 일구시고 돌을 골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론 잘되라고 역경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시험의 채근질도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포도밭에서 탐스런 열매를 맺기 바라신 때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정성으로 드려야 할 예배와 공경의 대상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사는 사제직, 무고한 피 흘림을 막아보려는 정의의 실천, 울부짖는 이들의 통곡의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예언직,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하신 예수님의 삶, 스스로 종이 되신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봉사직의 열매입니다.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 포도밭에서 탄식의 노래가 아닌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성 바오로는 또다시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필리 4, 6)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갯세마니피정의집 원장>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익는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영명축일 교우 명단 - “축하합니다”

3일 로마노윤성호 4일 프란체스코이민, 프란체스카
이 활란 7일 로사리아 김영은 8일 시메온 장원영

19일 : 바오로 김용하

◎ 노동원 라자로형제가 신임 재정 부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서원일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회 단합모임 안내

공소의 모든 자매님을 초대 합니다 오는 11월 1일
(토) 오후 6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울뜨레야 안내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음악의 밤 안내

11월 28일에 안토니다니엘성당에서 주최하는 음악
의 밤에 우리 공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힘찬 화음을 위해 노래에 관심 있는 교우는 연습
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의 단결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협조
를 바랍니다.

문의: 김 율리안나 성가 단장 (519 271 9418)

◎ 사제관 꾸미기 협조 안내

그동안 교우들의 협력아래 공소 교육관이 아름답
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제관을 꾸며할
시간입니다. 현재 사제관의 단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몇몇 품목이 더 필요 합니다.

* 소파 (1인용 과 2인용), End Table Set,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등

문의 : 이명희 관리부장 B) 519-894-3533
H) 519-896-9628 C) 226-338-0679

◎ 공소 기금 마련 컴퓨터 점검 행사 안내

바이러스등으로 작동이 잘 되지않는 컴퓨터를
점검해드립니다.(비용:\$50, 부품비는 별도)

일시 : 10월 12(일)/25(토)/26(일) 10 ~ 오후 4시

장소 : 교육관

◎ 10월 구역모임

- ▶1구역: 10/25(토) 오후 6시, 박재영형제집
- ▶2구역: 10/25(토) 미사후 교육관
- ▶3구역: 10/25(토) 오후 5시, 노동원형제집
- ▶4구역: 10/24(금) 오후 7시, 박루피나자매집
- ▶5구역: 10/25(토) 오후 6시, 김호철형제집
- ▶6구역: 10/25(토) 오후 7시, 장철원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3주년이
되어 갑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현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주간 전례

- ▶10월 7일(화) 오후8시, 목주기도의 동정마리아
- ▶10월 9일(목) 낮 12시,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 ▶10월10일(금) 오후 8시, 연중제 27주간금요일

◎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

일시: 10월 19 오후 2시
장소: 해밀턴 주교좌성당
본당과 공소에서 별도 미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
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10일 - 3월 24일 14박15일
순례비용: \$3,5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23일(선착순 30명)
신청: 선교부장

작은 변화

우리를 바꾸는 것은
일상 속의 작고 단순한 변화들입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단순한 변화라고 알잡아 봐선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바뀌 나가면 어느 새
엄청난 변화 앞에 서게 됩니다.

* 낙숫물에 섬돌의 구멍이 파이고 한 걸음 한 걸
음이 마침내 천리길을 갑니다.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알 하나가 많은 열매를 거두
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이 큰 비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한탕주의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날마다 충실히 하
면 반드시 성공자의 대열에 오를 것입니다.

2008-39

2008. 10. 5.

연중 제 27주일

-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명자 성사	명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 이 민 차주 해설 김근호

화 답 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입 당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 헌 (214) 주께 드리네
성 체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퇴 장 (271) 로사리오기도 드릴 때

독서

10월 5일	노재현	노정은
10월 12일	박용대	박명옥
10월 26일	박순웅	박복순

봉헌

10월 5일	서원일	서소영
10월 12일	노재현	노정은
10월 26일	노동원	노성은

복사

10월 5일	류지현	이수민
10월 12일	구하람	김건우
10월 26일	박규환	노승범

천교

10 월 5일 장미	10월 12일 백함
10 월 26일 신비	11월 2일 환희